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역경제 성장세 둔화

제조업 성장률 광주 1.1%·전남 2.3%. 전국평균 밑돌아

한은 지역본부 “에너지·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거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주력 제조품목의 생산과 수출 증가율이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성장세 둔화로 지역 주요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됐다. 2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이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전남지역 경제성장의 특징 및 정책대응 방향’ 자료에 따르면 2010~2016년 연평균 광주지역 제조업 성장률(1.1%)은 광역시 평균(2.1%)보다 낮고 2000~2006년 대비 성장률 하락폭(7.1%p)은 광역시 평균(1.7%p)보다 높았다. 전남 역시 제조업 성장률(2.3%)이 광역도 평균(3.6%)보다 낮았고, 성장률 하락폭(3.1%)도 광역도 평균(2.0%)보다 크게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주요 품목별 생산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0~2016년 기준 자동차 생산 성장률은 3.4%로 2000~2006년(25.5%)보다 -22.1%p 낮았다. 가전제품 역시 -15.2%p 감소했다. 전남의 경우 조선 생산 성장률은 2010~2016년 7.8%로 2000~2006년(13.5%)에 비해 -5.7%p 감소했으며 석유화학도 -5.3%p 하락했다. 연구팀은 “광주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경우 공장 증설 이후 생산이 정체현상과 더불어 역내 업체의 생산공장 해외 이전 등으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전남 또한 수출 부진, 중국의 자급률 제고 등

의 영향으로 조선과 석유화학의 성장률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지역 생산 성장률이 감소함에 따라 수출 성장률도 크게 하락했다. 광주의 경우 자동차(-105.0%p), 가전제품(-24.1%p), 전남은 선박(-73.0%p), 석유화학(-65.0%p)의 성장률이 감소했다. 기업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부진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광주는 부진했고 전남은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대규모 장치산업의 설비 유지보수나 효율화를 위한 투자를 제외하면 정체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지역 주요기업들의 경

영악화가 이어졌다. 2015년 광주 주요 기업(100인 이상)의 영업이익률(3.9%)은 2010년(10.9%)에 비해 7.0%p 하락해 광역시중 하락폭이 가장 컸고, 전남은 5.8%p(12.8%→7.0%) 하락해 광역도중 하락폭이 강원, 충북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조사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이 둔화된 지역 주력 제조업을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합 등을 통해 고도화해 신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바이오 등 지역내 새로운 산업을 적극 육성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환준기자 choihj@kjdaily.com



건설협회 광주시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회장 이권수)는 지난 24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수입지출 결산안과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협회는 올해 사업목표로 ▲신수요 창출 및 성장기반 조성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 관련 규제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 발굴 개선 ▲정부위탁사업 공정수행 및 회원 경영활동 지원 강화 ▲지역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및 회원 협회 참여 활성화 등으로 확정하고 협회의 역할을 집중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권수 회장은 “회원사의 수주영역 확대와 적정공사비 확보 및 경영여조사항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기자 coolguy@kjdaily.com

농어촌公 청렴문화 확산 혁신위 발족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는 25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고객과의 소통을 통한 청렴음부즈만 가능 강화를 위해 ‘KRC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에 발족한 혁신위원회는 기존의 ‘감사자문위원회’와 ‘KRC음부즈만’을 통합하고 외부 고객과의 소통 기능을 확대·개편했다. 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7명과 내부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경영진과 감사실에서 공사에 필요한 청렴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외부위원과의 견교한 및 해소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외부인의 객관적 시각에서 사전 예방적이며 근본적 해결방안을 도출한다. /김종민기자 kim777@kjdaily.com

여수상의 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

여수상공회의소(회장 박용하)는 지난 24일 중회의실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대표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발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와 대기업 집단의 골목상권 침범으로 인해 점포의 폐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곧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여수산단의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이용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시책 설명도 있었다. /여수=김진선기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시장 진출 나서

(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가 25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콘텐츠시장 판로 개척에 나선다. 이번 판로개척은 도내 콘텐츠 제품과 솔루션을 보유한 유망기업의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아몬도소프트(대표 장진호), ㈜젠트정보기술(대표 김광진) 등 유망 콘텐츠기업 9개사가 참가한다. 먼저 26일부터 28일까지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컨퍼런스(GMIC)’에 참가해 전남 공동관을 운영을 통한 현지 홍보 및 마케팅을 진행한다. 이후에는 상하이로 이동해 현지 투자자와 벤처캐피탈(VC) 초청을 통한 투자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 원장은 “중국은 글로벌 콘텐츠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크고, 매년 성장세가 증가하는 등 여전히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다”며 “유망 콘텐츠 기업들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kim777@kjdaily.com

신보, 상반기 온라인 채용박람회

신용보증기금은 우수 중소기업의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 채용박람회는 채용 포털사이트 잡코리아에 전용 채용관을 개설해 오는 7월31일까지 진행되며 신보가 선정한 ‘좋은 일자리기업’, ‘신보 스타기업’, ‘퍼스트뱅크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 200개사가 참여해 460여명의 채용에 나선다. /최환준기자 choihj@kjdaily.com



전남농협 “소비자보호 실천” 고객 가치 중심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대선)의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가 25일 농협전남본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지역 전통시장 우수 맛집 발굴한다”

중기부 광주·전남청, ‘오감통’ 먹거리 타운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이 지역 전통시장 먹거리 판로 촉진 및 활성화에 나선다. 25일 중기부 광주전남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강진읍 시장을 방문해 지역 브랜드가 높고 대표성을 갖는 ‘전통시장 먹거리 찾기 간담회’를 가졌다. 강진읍 시장은 음악과 관광을 전통시장과 결합하는 핵심프로젝트인 문

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총 15억여원을 지원받아 추진했다. 이로 인해 야외무대, 안내판 설치, 시장 상징물 조성 등 특색을 표현하기 위한 시장브랜드 개발로 먹거리, 즐길거리 등 고객의 오감을 만족한다는 뜻의 ‘오감통’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했다. 또한 전통시장 이미지를

벗고 밝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로 개선하는 등 시장 곳곳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강진읍 시장은 음악과 먹거리를 전통시장에 결합한 오감통 먹거리 타운을 조성해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등이 있는 개성 넘치는 시장으로 변모했다. 특히 오감통 먹거리 타운에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함으로써 먹을 때마다 젊어진다는 뜻을 지닌 ‘보양식 회춘탕’

(문어+전복+토종닭+한약재 등)과, ‘강진불고기정식’, ‘강진한정식’ 등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 다양한 고객층을 시장 내로 유입시키고자 젊음의 상징 ‘락’을 소재로 한 락페스티벌, 아쭈마 패션쇼, 1천원 매대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형 광주·전남청장은 “강진은 남도답사1번지라고 할 만큼 다산초당, 고려청자 등 많은 문화유적지가 있다”며 “관광자원과 전통시장이 연계된 전남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더욱 더 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환준기자 choihj@kjdaily.com

인력공단 광주본부, 중기 HRD 담당자 연수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인식제고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HRD 담당자 연수’를 26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일학습병행제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최정호 2018 평창올림픽 ICT

사업팀장·전북우정청 사업지원국장의 ‘첨단 ICT 서비스 활용사례’, 권동호 한국산업인력공단 NCS공공지원팀장의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의 이해’, 이정봉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공인노무사의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인사노무관리’ 등 전문가 강의가 진행된다.

김대수 광주지역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핵심인재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기업 담당자들이 인적자원개발이 기업의 부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인식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환준기자 choihj@kjdaily.com

나주, 2층 주택, 급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 1000만원~~ 급매 - 5200만원
- H. 010-6838-1230

